

군산시, 천재지변 피해 항구복구 대책회의

집수맨홀 설치·택지개발지구내 우수배수계획과 연계 우수처리 미성초 주변 침수예방 중점관리지역 지정 간선수로 활용 우수배제

군산시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집중호우 태풍 등 강력한 천재지변으로 반복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강일준 시장을 비롯해 관련 관공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피해 항구복구 대책회의를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현황을 점검, 항구복구 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항구복구 대책으로는 군산역 교차로 침수의 경우 침수맨홀을 설치,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우수배수계획과 연계해 우수 처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촌

동 백룡로 도로 침수의 경우에는 페이퍼코리아 개발사업 부지 내 신규 우수로를 추가 설치하여 빗물이 도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지형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한 미성초교 주변을 침수예방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호우 시 농어촌공사의 간선수로를 활용하여 우수 배제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도 농작물 침수피해 대책으로 풍수해 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등 가입 필요성과 자연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태풍



지난 17일 강일준 시장을 비롯해 관련 관공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피해 항구복구 대책회의를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현황을 점검, 항구복구 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시민의 피해를 막고 피해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와 근본적인 문제

제의 해결책을 강구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올해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접수

저소득 가정 학생과 예·체·기능 장학생 등 선발 접수기간 23일부터 25일까지 총1억7000여만원 지급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2018년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재단에서는 성적우수 장학생을 비롯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과 예·체·기능 장학생 등을 선발해 총1억7,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익산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익산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익산시민의 자녀 등이고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로 익산사랑장학재단(익산시청 본관 4층)에 방문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산시내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장학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익산사랑장학재단 홈페이지(www.ilsa.or.kr) 및 익산시청 홈페이지(www.ik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2007년 설립된 익산사랑장학

재단은 시출연금과 후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1,631명에 19억 4,6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장학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예체능분야 '익산의 빛' 지원사업을 통해 3개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했고, 온라인강의 수강권 400매를 구입하여 신청자에게 배부했으며 가을에는 명문대 교육문화 체험을 계획하고 있다.

익산사랑장학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익산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사랑장학재단 사무국(☎859-5158, 5152 ~ 5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동병하치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겨울철 감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만 3~5세 유아 30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총 3회 '동병하치(冬病夏治)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동병하치(冬病夏治)란 '겨울철 질병을 여름에 예방한다'는 의미로,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감기,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예방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5년부터 한소아한의원의 전주분원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병하치 프로그램은 자연의 양기가 가장 왕성한 삼복(초·중·말복) 동안 호흡기 관련 경험에 삼복첩 패치를 부착하여 장기 순환을 돕고, 인삼, 황기 등으로 만든 약선 10일분을 제공하여 아동의 면역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군산시는 저소득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소방서 군 대체 복무 3명, 소방관 시험 최종합격

의무소방대원 2명(수방 전민우, 상방 김수환)·사회복무요원 1명(우규현)

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에서 군 대체복무중인 3명이 2018년도 소방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들은 군 대체복무 인력으로, 낮은 소방사에서 근무하고 저 연봉에는 소방공무원 시험에 열공하는 등 주경야무를 실천해 주위의 칭송을 받았다.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는 의무소방대원 2명(수방 전민우, 상방 김수환)과 사회복무요원 1명(우규현)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수방 전민우는 의무소방

특재분야에 합격했으며, 상방 김수환 사회복무요원 우규현은 공개전형인 화재진압분야에 합격해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사회복무요원 우규현은 "어렸을 적부터 119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었다"면서 "군 복무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면서 틈틈히 필기시험에 대비하다보니 행운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봉춘 익산소방서장은 이들에게



축하금을 전달하고 "제대와 동시에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했다. 앞으로 가정과 국가에 든든한 안전의 초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지역 맛집 지정 업소 친절교육

군산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의 관광 자원화한 특색 있는 먹거리를 선보이고자 2018년 군산 맛집 38개소(신규 3, 재지정 35)를 지정했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맛집은 남춘길국수(성심면), 수원성(수송동), 스위트언더아(신창동) 3개소로 사전 심의 및 군산맛집 발발 육성위원회의 현지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으며 기존 업소 35개소와 함께 군산을 대표하는 먹거리 문화의 중심이 되어 운영된다.

현지행거는 음식의 맛 독창적인 메뉴



가격의 적정성, 위생, 서비스, 시설 등의 항목으로 이뤄지며, 지정된 맛집의 경우에도 사후 관리를 위해 정기적 재심사와 수시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사이에서는 지난 18일 신규 및 재지정 맛집 38개소 영업주에게 지정증 교부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며, 지정된 업소는

맛집 표지판 부착,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오숙자 식품위생과장은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친절 및 차별화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을 만들 수 있도록 군산맛집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시 홈페이지(www.gnsn.go.kr) 및 홍보 책자를 통해 대표음식 소개 등 업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김충영 의원

제대 익산시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김충영 의원이 선출됐다. 익산시의회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수연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신동해, 이순주, 한상욱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한편, 이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충영 의원, 부위원장에 김진규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들은 2019년 6월말까지 활동하며,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7회계연도와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하게 된다. 이날 김충영 위원장은 "각 사업에 대한 성과와 효과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낭비되는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출, 불요

불급한 선심성 예산 등이 없는지 철저히 심사하여 익산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보건소, 폭염대비 건강관리 안전수칙 홍보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발령으로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관내 응급실 운영 2개 의료기관(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을 통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이 나타나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질환이다.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응급실을 내원한 일일 온열환자 발생현황을 질

병보건통화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예방수칙을 홍보하는데 활용된다.

시 보건소는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과 더불어 보건인력 40여명이 직접 취약계층을 방문 무더위쉼터 424개소를 안내하고 폭염대비 건강관리 안전수칙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응급 의료기관을 통해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온열질환자는 15명(열경련 4명, 열사병 4명, 열탈진 7명)으로, 노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군산=김정훈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